

예겸, 『사조선록 역주 2』 김한규 역, 소명, 2012.

p. 223-351.

『遼海編』 제2권 이어서

「모화관(慕華館)¹⁾ 술자리에서 나라 안의 여러 대신들에게 유별함」

「소나무 정자의 술자리에서 도감(都監)의 여러 군자(君子)들에게 유별함」

- 이별의 술자리에서의 심정을 이야기.
- “(조선에는) 詩와 禮²⁾가 오래전부터 이어져오고, 사람들은 학문을 좋아하며 사인(士人)이 함께하고 현사(賢士)가 많다.”
-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조선을 떠나는 슬픔 또한 깊음을 나타냄. 海東의 북쪽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

「삼가 고아한 운(韻)을 이어 봉정함」 성삼문

- 헤어짐을 이야기하며 상대의 학식을 찬양하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볼 수 있음.
- “며칠 동안 말씀을 접했더니 자신도 모르게 구부러진 경쇠³⁾처럼 머리가 항상 낮춰졌다.”
- “언어가 비록 다르다 해도 道는 하나이니…”

「기자(箕子)의 사당을 배알하며」

「기자(箕子)의 무덤을 배알하며」

- 천하의 기원인 周에 대한 공경.
- “홍범이 널리 펼쳐져서 우주(禹疇)⁴⁾를 일으키고 성학(聖學)이 종주(宗主)에서 열려졌다.”
- 조선인들은 기자를 자신의 근본으로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선인들이 자신의 근본에 대한 보답으로 매년 제사를 드림.

「安州에 다다르니, 국왕이 먼저 鄭 공조판서를 보내 살피게 해서, 시로 유별(留別)하고 즉석에서 화답함」

「두 분 천사(天使)⁵⁾ 대인과 헤어지는 마음을 글로 술회함」 공조판서 정인지

- 녹의(綠蟻)⁶⁾가 술잔에 가득 넘치니 한껏 취해 마땅하고, 여구(驪駒)⁷⁾를 한 곡 불러 이별의

1) 조선시대에 명과 청 사신을 맞이하던 곳.
 2) 시례(詩禮)를 지칭. 중국의 전통문화를 총칭하는 말.
 3) 삼가 공경하는 모양을 이르는 말.
 4) 구주(九州) 혹은 중국을 가리키는 말.
 5) 천자의 신하.
 6) 맛있는 술을 이르는 말.

슬픔 움직인다.

- 햇살 따뜻한 압록강에서 용궁에 다가서고 하늘 낮은 학야(鶴野)⁸에서 멀리 신기루를 바라본다.

- 저 높은 하늘 위로 멀리 날아간 뒤에도 이따금, 이 유람을 기억할 수 있을는지.

「공조판서의 운을 보여주기에, 즉석에서 화답함」

- 압록강 위 밝은 해도 이별을 애석히 여기나, 술통을 앞에 놓고 흠뻑 마셔봄은 어떠한가.

「운을 이어 두 분 조사(詔使) 대인의 궤하(几下)에 바침」 신숙주

「成謹甫보 앞의 운을 써 보여주어, 즉석에서 화답함」

「삼가 공조판서 정인지의 운을 이어 바쳐 올림」 성삼문

- 천자의사신이 탄 수레가 동쪽으로 내려와 온 나라가 기뻐지만, 옥절(玉節)이 서쪽으로 돌아가게 되어 나를 슬프게 한다.

- 동인(東人)의 눈으로 황화(皇華)의 완숙한 경지 보았으니, 이후에도 마치 공이 계신 듯하지 않겠는가.

「다시 고아한 운을 이음」 신숙주

- 서쪽가는 수레가 깃발 돌려 중주(中州)⁹를 가리키니 아득한 이별의 슬픔...

- 명성이 북두처럼 높아 사람마다 쳐다보니...

「다시 이어서 바쳐 올림」 성삼문

- 세 갈래 압록강은 華夷를 나누는 경계, 한잔의 아황(鵝黃)¹⁰으로 남은 시름 보낸다.

- 장자(長者)¹¹의 기억에 광생(狂生)¹²의 이름 남겼으니, 해외(海外)¹³에 나 같은 사람 또 있을까.

「새벽에 청천강을 건너며, 정공조판서가 배 안에서 술을 마련해서 유별하기에, 시를 지음」

「고안한 운을 받들어 이음」 정인지

「정오에 박천을 지나며, 성근보가 앞의 운을 써서 보여줘서, 즉석에서 화답함」

「삼가 청천강 배 위에서 운을 이어서 받들어 드림」 성삼문

「효녀 四月을 기리는 時」

- 郭山州(평안북도 곽산)에서 길을 나서는데 조선의 효녀사월을 기리는 비문을 발견함.

- 일개 소녀조차도 이러한데 이 나라의 사대부는 어떻겠냐며 크게 감명하여 중국의 성군들이 베푸신 교화가 조선에 미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를 기록하고 노래함.

「엮으려 곽산효녀시의 운을 이어 내한 대인 문궤에 봉정함」 신숙주

...

- 서울에서 압록강까지 1천리의 거리를 동행하는 동안 이별에 대한 시문을 주고받음.

7) 고대에 고별할 때 부르던 노래.

8) 요동의 별칭

9) 중국을 이르는 말.

10) 노랗고 아름다운 색의 술.

11) 덕이 높고 근후한 사람이란 뜻. 상대를 높여 부르는 말.

12) 뜻은 높지만 작은 일에 거리끼지 않는 사람이란 뜻. 현실에 초연한 자신을 낮추어 부르는 말.

13) 四海之外的 준말로 중국의 밖, 즉 이역의 경역을 가리킴.

「조선에서 창화(唱和)한 한묵(翰墨) 원고의 발문(跋文)¹⁴⁾」

- 중국을 알아받들고 신하의 예의를 삼가 지키는 나라로는 조선이 으뜸이라 칭해진다.
- 사신들을 천자의 은혜를 대하는 듯 대하였고, 사신의 시문을 접한 조선의 사인들은 칭송하고 감탄하며 위축되었는데, 오직 정인지, 신숙주, 성삼문 세 명 만이 틈틈이 화답할 수 있었다.
- 조선은 기자를 계승했고, 그 나라 사람들은 예의를 익히고, 시문에 익숙하다. 이는 夷이면서도 중국과 비슷해진 경우다.
- 『춘추전』에서 이르기를, 이적이 厦를 어지럽히면 이를 응징하고, 중국과 비슷해지면 중국으로 간주한다고 했으니, 이는 옛 제왕들이 이적을 제어하는 방법이었다.
- (조선사람들이) 天使와 더불어 창화하며 화답할 수 있었으니 중국의 풍속과 사물을 사모, 존중할 줄 안다고 할 수 있다. 북로(北虜)가 하사품을 여러 번 받고서도 오히려 금수와 같은 행동에 힘쓰는 것과 비교한다면 그 선함과 악함이 어떠한가.

『遼海編』 제3권

「조선기사(朝鮮紀事)」

- 1450년 정월 10일에 요동에서 출발하여 연산동관(連山東關)¹⁵⁾을 거쳐 조선으로 들어와 다시 요동으로 이동을 하는 동안 체류했던 기간에 일어난 일들을 서술하고 있음.
- 연회를 중심으로 기술. 서울에 가까워올수록 왕이 의정부의 대신들을 보내 사절단 안부 확인하고 연회를 베풀. 사절단이 돌아가는 길에 정인지, 신숙주 등이 동행하며 창화를 함께 하며 시문을 주고받았고, 압록강 강가까지 조선이 연회를 통해 대접해준 내용이 서술되어 있음. 마지막까지도 명의 사신과 헤어지지 못하여 주변에서 억지로 떼어내려고 했다는 묘사로 3권 마무리.
- 그 외에도 임금과 세자의 병세로 왕자가 정사를 돌보는 까닭에 명의 조서를 왕자가 대신 받들겠다는 얘기에 대한 사신의 반응, 연회에서 음악을 쓰는 문제와 관련하여 女樂과 男樂에 대한 논쟁, 선성묘(先聖廟) 배알 등.

『遼海編』 제3권

「중조증언(中朝贈言)」

<한림시강 倪君이 사신으로 조선에 가는 것을 떠나보내며 지은 시의 서문>

- 조선에 보내는 사신으로 예균(예겸)을 선발한 이유
- 천자가 이르시기를, “여러 이적 중 조선만이 가까운 동방 변국으로 신하의 직분을 더욱 조심스럽게 받들고 있으니, 다른 나라보다 먼저 조서를 내려 효유함이 있어야 마땅하다. 또한 그 나라는 왕통을 이어감이 오래되었고, 평소 유술(儒術)을 사모하고, 예문을 숭상하니, 예부는 사신 가운데서 문학의 깊이가 심오하고 위엄있는 몸가짐이 훌륭한 자를 골라서 가게 하라”
- 조선은 이적이지만 조선의 수준에 맞는 학문과 덕이 있는 사신을 보내어야 하며, 예균은 시

14) 문체의 한 가지로 그 책의 내용과 그에 관계되는 일을 간략하게 적어 책의 끝에 붙이는 뒷글.

15) 명대에 둔 관으로 동관이란 화이의 경계가 구분되는 곳이다.

문과 행동거지가 천자를 대신할 사람으로 적합하다는 내용.

<時>

- 명의 신하들이 쓴 조선으로 사행을 떠나는 예겸에 대한 격려의 시문.
- 천자의 은덕과 이를 조선에 퍼뜨리고 깨우치고 오라는 내용.
- 덕 있는 이를 골라 조선에 사신으로 보내니, 먼 하늘에서 문장을 떨치라는 격려(글 아는 자들이 있는 조선에 천자의 사신 가운데 이처럼 현명한 이 있음을 보게 하리라).
- 천자의 덕, 천자에 대한 공경뿐만 아니라 천자의 사신이 가지고 있는 시문의 능력에 대하여 강조.

「요양증언(遼陽贈言)」

<時>

- 요동에서 받은 예겸의 사행에 대한 격려의 시문
- 예겸의 풍채, 인품, 골상, 재주의 뛰어난을 예찬.
- 기자(조선)가 책봉을 받은 흔적을 가지고 돌아올 때의 위풍당당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사기를 북돋아줌.
- 아울러 시문을 가득 채워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음.

「朝鮮詠別(조선영별)」

<倪先生께서 使命을 다하고 되돌아가심을 송별하는 시의 서문> 신숙주

- 헤어질 때 조선의 대신들이 이별을 기념하여 지어서 준 시들.
- 예겸의 타고난 자질과 詩書의 아름다움 그리고 유덕한 공업(功業)과 언행을 칭송. 천자의 인정을 받을 만한 군자(君子)¹⁶⁾.
- 조선은 기자 이래로 예악과 문물은 중화의 것을 사모하며 책봉을 받아왔는데, 그동안 조선에 오는 자들은 큰 유학자나 저명한 고관이었지만, 이번처럼 경약(經輻)¹⁷⁾과 고문(顧問)¹⁸⁾의 지위에서 나온 경우는 없었으니, 조선을 총애해서 대우하는 뜻을 엿볼 수 있다.
- 신의를 지키며 독실하고 정중하게 천자의 덕을 알리는 데 힘쓰는 예겸을 통해 천자의 신성함을 더 알고싶지만, 이별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함.
- 예겸이 명으로 돌아가 천자를 도와 성취하게 하고 海內와 海外가 함께 인덕이 있는 장수의 지경에 오르도록 힘써달라는 당부.

<時>

- 聖인이 만물을 만들어 보이니, 文治에 의한 교화(문명)가 회복되고 천하가 안정되었음.

16)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17) 천자 앞에서 경서를 강론하는 자리.

18) 천자의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말하거나 그 직책에 있는 사람을 이르는 말.

- 천자의 덕을 칭송하고 조선의 덕화를 감사함, 그리고 천자의 사신으로 예겸의 뛰어난 양함,
- 이러한 뛰어난 인재와 함께 길 가려 했지만 손님이 만나자마자 다시 돌아간다고 말하니 안타까움.
- 예겸과 시문, 시가를 주고받은 것이 시통(詩筒)에 한가득.
- 조선과 명의 돈독한 사대관계.
- 예겸이 명으로 돌아가 천하를 다스리는 천자의 원대한 방책을 잘 돕길 기원.
- 황제의 장수를 축원.

<후서(後序)>, <발문(跋文)>

- 예문의 훌륭한 식견과 재능, 그리고 이러한 사신을 조선에 보낸 천자의 총애와 文德에 대한 감격 등 조선의 신하들이 시문을 쓰고, 전달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